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 물음 물음 글을 쓰다 보면 종종 문장 부호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괄호를 자주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마침표를 어느 곳에 찍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장이 끝나고 이어서 괄호를 쓰려면 마침표를 먼저 해야 하는지 괄호 뒤에 해야 하는지 혼동됩니다. 아니면 괄호 안에 따로 마침표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연주, 서울시 서대문구 아현동)

▶ 답 마침표는 문장의 끝에 쓰이면서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합니다. 현행 문장 부호의 규정에서는 소괄호에 쓰는 마침표에 대해 규정해 놓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장 중간이나 끝에 소괄호로 묶인 보충 문장을 쓰는 일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문장이 끝난 뒤에 괄호를 사용한 보충 설명이 뒤따르는 경우, 괄호 안의 문장이 바로 앞 문장과 내용상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두 문장의 마침표를 묶어 괄호 밖에 하나만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마침표를 각각 따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 ㄱ. 혼인한 부부는 신부의 집에서 살기도 했고 신랑의 집에서 살기도 했다(이는 조선이 시가살이 사회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 나.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또 괄호 안의 문장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괄호 안 문장의 마침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그가 그 아래에서 놀던 회화나무(어린이가 회화나무의 이슬을 맞으면 총명해진다고 한다)가 있다고 한다.

[물음] 제 아이가 “악당을 처부수는 정의의 용사”라고 쓰는데 웬지 표기가 틀린 것 같습니다. ‘처부수다’인지 ‘처부수다’인지 헷갈리는데 바른 표기를 알려 주십시오.

(고서영,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답] ‘악당을 처부수는 정의의 용사’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낱말의 맨 앞에 오는 ‘처’와 ‘처’는 발음이 같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처부수다’는 ‘치다’와 ‘부수다’가 합쳐진 말로, ‘치어+부수다’가 줄어들어 ‘처부수다’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낱말에는 ‘처들어가다, 처내다, 처올리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구’, ‘땀이’ 따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처-’가 붙은 ‘처먹다, 처넣다, 처박다’ 등을 쓸 때에는 ‘처-’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1) ㄱ. 도끼로 문을 처부수다.
 ㄴ. 군대를 이끌고 강의 북쪽 지방을 처들어갔다.
- (2) ㄱ. 장롱 속에 옷을 처박아 두었다.
 ㄴ. 말뚝을 모두 뽑아서 강물에 처넣어 버렸다.

◻ [물음] ‘콩알만하다’와 ‘먹을만하다’에서 ‘만하다’의 띄어쓰기를 알고 싶습니다.

(박규철, 충북 괴산군 괴산읍)

◻ [답] ‘콩알만 하다’, ‘먹을 만하다’로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만 하다/만하다’는 ‘만’과 ‘하다’를 띄어 쓰는 경우와 붙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콩알만 하다’는 띄어 쓰는 경우이고, ‘먹을 만하다’의 ‘만하다’는 붙여 쓰는 경우입니다.

‘만 하다’로 띄어 써야 하는 경우는 체언과 보조사 ‘만’이 결합한 것에 ‘하다’가 이어진 구성입니다.

(1) 집채만 한 파도 / 형만 한 아우 없다.

‘만하다’로 붙여 써야 하는 경우는 용언 ‘먹다’가 ‘먹을’로 활용하는 것처럼 선행 용언이 관형사형 어미 ‘-ㄴ’로 활용할 때입니다. 이 경우의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 됩니다.

(2) ㄱ. 볼 만한 책/이 정도의 고통은 참을 만하다.

 ㄴ. 볼만한 책/이 정도의 고통은 참을만하다.

그런데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2ㄱ)은 (2ㄴ)처럼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물음] 가끔 음식점에서 ‘안주 일절’이라는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절’이라는 말이 주로 금지나 부정의 뜻으로만 쓰이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안주 일절’이라는 말은 ‘안주를 금(禁) 한다(?)’라는 뜻이 되지 않나요? ‘안주 일절’이라는 표현이 제대로 쓰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수진, 전북 익산시 여산면)

[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절’과 ‘일체’의 쓰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절’이라는 말은 부사로 ‘아주’, ‘전혀’, ‘절대로’ 따위의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흔히 사물을 부인하거나 행위를 금지할 때 많이 쓰이는데 아래와 같은 것들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1) 가. 출입을 **일절** 금하다.
- 나. **일절** 간섭하지 마시오.
- 다. 그는 고향을 떠난 후로 연락을 **일절** 끊었다

반면 ‘일체’이라는 말은 ‘모든 것’, ‘전부’ 따위의 뜻으로 쓰입니다.

- (2) 가. 그는 재산 **일체**를 학교에 기부했다.
- 나. 권한을 **일체**로 맡기다.
- 다. 음료 종류의 **일체**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안주 일절’이라는 표현은 ‘안주 일체’로 바뀌어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물음 “양복을 새로 맞춰어/마쳤어.”라고 말할 때, ‘맞춰어’와 ‘마쳤어’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또 “친구와 정답을 맞춰/맞혀 보았다.”에서 맞는 표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경진, 경남 마산시 석전2동)

답 “양복을 새로 맞춰어.”와 “친구와 정답을 맞춰 보았다.”라고 써야 합니다.

‘맞추다’와 ‘마추다’는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서 ‘맞추다’로 통일했습니다. 따라서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 등의 의미로 쓸 때에는 모두 ‘맞추다’가 맞습니다.

‘친구와 정답을 맞춰 보았다’라는 표현은 대상끼리 서로 비교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맞추다’를 써야 합니다.

- (1) ㄱ. 나사를 맞춘다.
- 나. 일정을 맞추어 보자.
- ㄷ. 구두를 맞추리 가는 길이야.
- ㄹ.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내가 열 문제를 모두 맞혔어.”라고 말할 때에는 ‘맞추다’가 아닌 ‘맞다’의 사동사 ‘맞히다’를 써야 합니다. ‘맞히다’는 ‘적중하다’의 의미가 있어서 정답을 골라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 (2) ㄱ. 나는 열 문제 중에서 겨우 세 개만 맞혀서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
- 나. 수수께끼를 모두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

물음 최근 개통된 전철역인 ‘병점’은 [병점]으로 소리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병점]으로 소리 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하나,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답 ‘병점’은 그 한자가 ‘餅店’으로서 [병점]으로 소리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한글로 똑같이 적히는 한자어라도 어떤 한자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그 발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高價’와 ‘古家’는 모두 ‘고가’로 적히지만 ‘고가(高價)’는 [고까]로 소리 내고 ‘고가(古家)’는 [고가]로 소리 냅니다(제시된 예의 발음 표시에서 장음과 단음은 구별하지 않음. 이하 같음). 그리고 동일한 한자는 같은 음운 환경에서 똑같이 소리 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동일한 한자가 같은 음운 환경에 쓰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자어의 일부로 쓰였느냐에 따라 그 발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법(私法)’과 ‘사법(司法)’은 뒷말이 ‘법(法)’일 뿐만 아니라 앞말이 모두 ‘사’로서 모음으로 끝난 말이지만 ‘사법(私法)’은 [사뻐]처럼 된소리로 소리 내고 ‘사법(司法) 고시’의 ‘사법’은 [사법]으로 소리 냅니다.. 결국 한자어의 발음(특히, 된소리되기 현상)은 어떤 한자로 구성되느냐 그리고 어떤 한자어의 일부로 쓰였느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점’의 경우에도 그러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병점’의 한자는 ‘餅店’입니다. 그런데 ‘점(店)’은 ‘주점(酒店)’, ‘매점(賣店)’, ‘옹기점(甕器店)’ 따위처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말인 경우에는 [점]으로 첫소리를 예사소리로 소리 내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경우에는 어떤 자음이냐에 따라 [점]처럼 첫소리를 예사소리로 소리 내기도 하고 [점]처럼 첫소리를 된소리로 소리 내기도 합니다. ‘간판점(看板店)’, ‘상점(商店)’, ‘금점(金店)’ 따위처럼 유성음인 경우에는 [점]으로 소리 내고 ‘음식점(飲食店)’, ‘늦점(-店)’, ‘술점(-店)’ 따위처럼 [점]으로 소리 내는 것입니다. 반면 앞말이 유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불규칙합니다. 즉, ‘만물점(萬物店)’, ‘양물점(洋物店)’, ‘어물점(魚物店)’, ‘철물점(鐵物店)’ 따위는 [점]으로 소리 내고 ‘설점(設店)’,

‘철점(鐵店)’으로 소리 냅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대체적으로 전자는 앞말이 ‘만물(萬物)’, ‘양물(洋物)’, ‘철물(鐵物)’ 따위처럼 2음절 이상의 말로서 자립적인 데 반해 후자는 ‘설(設)처럼 1음절의 말로서 비자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철점(鐵店)’은 ‘철(鐵)’이 자립적인 말이므로 예외에 속함. 앞말이 유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앞말의 자립성 여부에 따라 ‘점’의 첫소리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점(餅店)’의 ‘점(店)’은 [점]으로 소리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점(店)’은 유성 자음으로 끝나는 앞말 다음에서는 첫소리가 예사소리인 [점]으로 소리 나기 때문입니다. 간혹 ‘병점(餅店)’을 [병쩨]으로 소리 내기도 하는데 이는 ‘점’을 ‘店’이 아닌 다른 한자로 본 데 따른 것입니다. 즉, ‘점’의 한자를 ‘店’이 아닌 ‘點’으로 인식하여 생겨난 잘못입니다. ‘점(點)’은 ‘강점(強點)’, ‘결승점(決勝點)’, ‘공통점(共通點)’, ‘냉점(冷點)’ 따위처럼 유성 자음으로 끝나는 앞말 다음에서는 첫소리를 된소리로 소리 냅니다. 즉, 이들 말은 각각 [강쩨], [결쨌], [공통쩨], [냉쩨] 따위로 소리냅니다.